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9호 [루게 제23311호] 주제99 (2010)년 12월 25일 (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 경축연회를 차리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을 경축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는 24일 연회를 차리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건군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 시고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우동숙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경옥동지, 김원홍동지, 김명국동지, 정명도

동지와 사회의 책임인물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동지가 연설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의 선군령도따라 령도의 온갖 도전들을 물리치고 백성을 떨쳐온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긍지 높여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필같이 굳어져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와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정지정보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군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6일과 7일 중국과 로씨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김책체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자기 자란, 자기 기술로 자립경제를 힘있게 발전시킬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풍부한 원료원천에 철저히 의거하고있는 비폭스화와 석탄가스화는 조선의 경제발전에서 추후도 양보할수 없는 첩徑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기업소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콧수를 쓰지 않는 제철방법을 완성함으로써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공업력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였다고 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실현은 자력갱생이야말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는 열쇠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승리와 번영의 한길기 이끌어주는 필승의 보검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기업소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특히 압연강재생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하시면서 나라의 강력한 기술집단들의 령명을 총동원하여 전반적생산공정의 현대화, CNC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와 방글라데시신문이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 브저버》 1일부는 《전사의 녀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숙녀사의 녀성,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김정숙주의의 위업을 받들어 조국방위에 인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부강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는것이였다.

녀사께서는 일찌기 어린시절에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녀사께서는 해방후 주석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인민들을 새 생활창조와 새 사회건설에 힘있게 불려주시었다.

녀사의 녀성은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현실로 꽃피어났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녀사의 녀성대로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될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그이께서 2008년 12월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어 지켜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올라 CNC기술의 최첨단들과,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비로공업의 창설 등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에서

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루어졌고, 김정숙녀사의 녀성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방글라데시신문 《나론 카라》 5일부는 《김정숙, 조선건군사에 남긴 공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명성높은 조선인민군의 강화발전에는 조선인민이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길이 흥모하는 김정숙녀사의 업적이 깃들여있다.

녀사께서는 해방후 김정숙주의의 건군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녀사께서는 주석의 뜻을 받들어 정규부대의 핵심골간이 될 군사정치간부들을 훌륭히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어 평양학원을 비롯한 군사정치간부양성기관들을 자주 찾으신고 각종 훈련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시었다.

주석의 건군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녀사의 로고는 군건설의 모든 분야에 새겨져있다. 조선의 건군사에 남기신 김정숙녀사의 업적은 필승불패의 조선인민군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라오스, 파키스탄신문이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라오스신문 《매닝라오》 12월 25호는 백두산대장군의 동상사진을 모시고 《미래를 꽃피우신 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김정숙녀사의 생애는 미래에 대한 사랑의 희생이라고 격찬하고 일찌기 어린시절에 혁명투쟁에 나서신 백두산대장군께서 아동단원들의 성장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으며 나라가 해방된 후에도 어린이보육교양과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데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즈》 5일부는 《백두산대장군 김정숙녀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조선인민들속에서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높은 칭송을 받고계신다.

김정일령도자께서 탄생하시어 처음으로 들으신것은 항일의 총성이었고 눈에 익히신것은 군복입은 어머니를 비롯한 투사들의 모습이었다.

블레편은 백두산대장군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뒤를 이을 훌륭한 장군으로 자라시길 바라는 간절한 녀성을 담아 아드님께 장군복을 지어주시고 서거하시기 전에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셔야 한다는 절절한 당부를 남기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김정일령도자께서 무비의 담력과 배정을 지니도록 깊이 마음쓰시었다고 하면서 블레편은 그에 대한 사실자료들을 련거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숙녀사의 녀성은 훌륭히 실현되었다. 녀사의 녀성대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정숙주의의 위업을 계승하시어 조선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빛내이시며 세계자주화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으로 그 존함을 만방에 떨치시었다.

본사기자

바다의 5개 섬을 률지와 련결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투쟁은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에게 안일과 해이, 순간의 담보와 침체도 허용하지 않고 언제나 불굴의 혁명정신과 경의한 의지를 가지고 긴장하게 투쟁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할것을 요구합니다.》

파산간석지 2계단공사장에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착공한지 6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1호, 2호, 8호, 9호, 10호방조제 1차물막이공사를 끝내는 혁신을 일으켜 률지와 바다의 5개 섬을 완전히 련결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시공조직



선군시대에 한쪽의 그림자만 펼쳐진 현대적인 률정양어장 본사기자 장철일 찍음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면서 조 건보장사업을 잘해주어 전투장 들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비약의 폭풍은 8호방조제공사장과 3호방조제공사장에서 새차게 타올랐다. 8호방조제공사에 달려붙은 석화, 로하,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공사를 끝낼 드높은 결의안고 공사에 필 요한 도량과 막돌을 마련하기 위한 발파를 련이어 들이대면서 힘찬 투쟁을 벌려 외장도와 달양도사이의 1차물막이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수송을 담당한 철강기계화사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의 운전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대형자동차들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만가동을 보장하여 많은 도량과 막돌을 설어 률까지 김기두

성 스 러 운 불 길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생애에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눈이 내린다.
12월의 대지를 포근히 감싸안으며
이슬이 내리는 환혼의 세계에 마음을 실어
우리 조영호 불러본다.

김정숙어머님!
그러면 금시라도 우리곶으로 다가오시
여 따듯이 손잡아주시는것만 같고
기발을 더 높이 추켜들고 멈춤없이,
주저없이 곧바로 카라고 절절히 당부하시는것만
같아 가슴은 불덩이마냥 달아오른다.

추억은 그리움으로만 오지 않는다.
어머님의 한평생이 비친 붉은기의 세찬
퍼덕임과 총대의 연세 기상으로 오며
우리와 함께 마중가시는 강성변영의 찬란한
해돋이풍경으로 온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 따라 나아가는 천만대오속에서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있으며 세계를 향해
노도쳐 전진하는 장엄한 시대의 승결속에서
어머님의 발걸음소리를 듣고있다.

김정숙어머님의 위대한 생애야말로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끊임없이
앞으로, 앞으로 내달리게 하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불길이다.

1

12월의 추억은 류달려 뜨겁다.
어머님의 모습이 사무치게 그리워
오산 덕기습 진달래꽃무늬를 안고 서서서는
저희들의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으로
우리 마음 끝없이 달려간다. 사연깊은
《사항기》의 은은한 선율이 실어
어머님의 한생을 가슴에 안아본다.

허나 그것만으로는 위대한 생애의
무한한 세계를 다 헤아릴수 없다.
어머님의 그 고결한 님으로 우리
심장에 가득차있고 걸출한 스승으로
우리앞에 계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이의 인자하신
영상은 우리의 가슴속에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자리잡고있으며
그이의 가르침은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울리고있고 그이의 모습은 우리
삶과 투쟁의 영원한 거울로 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다.》

이 땅 그 어디에나 다 서보고 다
들려 보자.

최북단의 광복생산지로부터
선경으로 자랑높은 미곡벌과
두메산간 창성평에 이르기까지
장군님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
은넋을 바치고 심장을 바치는
인민의 모습에는 어머님께서
자신의 한생으로 보여주시는
수령정사용위정신이 맥맥히
살아놀란다.

해방된 조국땅에 삼일포의
메아리를 울리여 조국의 운명도,
인민의 행복도 총대에 달려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새겨
주시는 어머님의 그 숭엄한
영상이 이 시각도 멀적의
서슬푸른 총창을 비껴든
오성산과 철령, 판문점병사들의
가슴속에 확차 있다.

회천전선에서 대고조의
기발을 세차게 휘날리는
근위병들의 가슴속에도,
홍남과 락원, 통성을 비롯한
대공업기지의 로동계급의
심장에 또 피어린 항일의
그날 어머님께서 보여주시는
백결불굴의 정신과 기개가
그대로 넘친다.

CNC노래가 절로 흘러나오는
공작기계공장을 돌아보아도
침담이란 말조차 모르던
해방직후의 그날에 벌써
손로동을

없어야 한다고 하시던
어머님의 가르침이
메아리되어 울린다.
축복의 황홀한 세계를
보아도 동그란 참대수들을
손에 쥐시고 한뼘두뼘
꽃수를 놓아가시며
하루빨리 인민의
락원을 세우자고 하시던
어머님의 음성
이 들려온다.

멋들어진 문화주택들이
늘어난 회명의 팔음천가에도
서보고 평양의 수지연필공
장이며 폭산공장의 연혁
소개실에도 들려보자.
그러면 밀영의 말밭에
꽃피는 선경을 그려보시던
어머님의 아름다운 꿈의
세계에 잠기게 되고
아이들에게 연필 한
자루, 파자 한개
번번히 쥐여주시지
못해 가슴아파하시는
어머님수령님의
심려를 달이시리라
함께 방도를 의논해
주시던 잊지 못할
화목을 안아보게 된다.

인민들속에서 나오고
인민이 떠받드는 스승은
그 인민과 더불어
영생한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의 걸피마다 새겨져
있다.

그러나 어머님과 같은
여성영웅의 한생은
영생에 대한 고급동서의
부피두더운 기록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후무후한 것이다.

인민의 마음속에
살파 투쟁의 영원한 불길로
살아있는 생, 그것이 바로
김정숙어머님의
영생이다.

우리는 저 눈송이처럼
쌓이고쌓이는 어머님에
대한 다함없는 정을
이렇게 터친다.

대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이 땅은
총재로 어머님의
넋이고 발자취이며
살아있는 력사이다.

2

사무치게 그리며
민족의 념원을 안고
선잠으로 수령의 품,
태양의 품에 달려간
우리 인민의 한
성원이시었다.
혁명군사철에도
평대원, 작식대원,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하시었고
해방후에도
평범한 인민의 한
성원으로
소박한 생활을
하시었으며
세상을 떠나시면서
도 늘 입고계시던
치마저고리를
입고 가신
위대한 평민이
바로 우리
어머님이시었다.

태어나서부터
위대한 생애를
마치실 때까지
인민들과
한치붕아래,
한뜨락안에
한살림을
피고 사신분에게
이끼에서는
인민이 스스로
심장에
간직하고 사는
영원불멸할
삶의 전설을
남기실수
있을것
아니리구나.

그러나 어머님과 같은
여성영웅의 한생은
영생에 대한 고급동서의
부피두더운 기록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후무후한 것이다.

인민의 마음속에
살파 투쟁의 영원한 불길로
살아있는 생, 그것이 바로
김정숙어머님의
영생이다.

우리는 저 눈송이처럼
쌓이고쌓이는 어머님에
대한 다함없는 정을
이렇게 터친다.

대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이 땅은
총재로 어머님의
넋이고 발자취이며
살아있는 력사이다.

어머니가 있는
혁명
은 앞날이
든든한 혁명,
미래가
양양한 혁명이다.
어머니,
그것은
미래를
낚아
키우는
품이고
정의와
사랑의
대명사이다.
따듯한
미소,
다정한
손길,
끝없는
인정의
바다...

그 무한하고도
뜨거운
저수지에서
혁명이라는
거대한
산아도
자란다.

수령부과 함께
어머님복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력사의
은 갓
시련과
풍파속에서
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불멸의
생명력이
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선군혁명력사
를
되새겨
볼수록
어찌하여
어머님수령님과
함께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영상이
가슴
가득
어려오는
것인가.

어머님수령님께서
생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한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감염하는
그런
역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께서는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어머니가
하시던
마지막
마음과
힘을
입고
바라주던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의지를
가다듬
곤
하였다
고
뜨겁게
회고
하시었다.

새겨보던
항일유격대의
첫 대오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어주시는
밥을
먹고
어머님의
손길이
닿은
군복과
신발을
신고
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신
붉은기
를
휘날리며
어머님앞에서
첫
사열을
받으면서
떠났다.

그렇게
안도의
수림을
떠난
유격대
가
천교령의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촉한을
이겨내고
로아령의
깊고
험한
산중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꽃피어
전진할
수
있을
것은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의
유산과
같은
조성이
된
좁쌀
한알이
깨우치는
위대한

수령부과 함께
어머님복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력사의
은 갓
시련과
풍파속에서
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불멸의
생명력이
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선군혁명력사
를
되새겨
볼수록
어찌하여
어머님수령님과
함께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영상이
가슴
가득
어려오는
것인가.

어머님수령님께서
생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한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감염하는
그런
역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께서는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어머니가
하시던
마지막
마음과
힘을
입고
바라주던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의지를
가다듬
곤
하였다
고
뜨겁게
회고
하시었다.

새겨보던
항일유격대의
첫 대오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어주시는
밥을
먹고
어머님의
손길이
닿은
군복과
신발을
신고
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신
붉은기
를
휘날리며
어머님앞에서
첫
사열을
받으면서
떠났다.

그렇게
안도의
수림을
떠난
유격대
가
천교령의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촉한을
이겨내고
로아령의
깊고
험한
산중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꽃피어
전진할
수
있을
것은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의
유산과
같은
조성이
된
좁쌀
한알이
깨우치는
위대한

수령부과 함께
어머님복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력사의
은 갓
시련과
풍파속에서
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불멸의
생명력이
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선군혁명력사
를
되새겨
볼수록
어찌하여
어머님수령님과
함께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영상이
가슴
가득
어려오는
것인가.

어머님수령님께서
생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한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감염하는
그런
역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께서는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어머니가
하시던
마지막
마음과
힘을
입고
바라주던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의지를
가다듬
곤
하였다
고
뜨겁게
회고
하시었다.

새겨보던
항일유격대의
첫 대오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어주시는
밥을
먹고
어머님의
손길이
닿은
군복과
신발을
신고
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신
붉은기
를
휘날리며
어머님앞에서
첫
사열을
받으면서
떠났다.

그렇게
안도의
수림을
떠난
유격대
가
천교령의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촉한을
이겨내고
로아령의
깊고
험한
산중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꽃피어
전진할
수
있을
것은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의
유산과
같은
조성이
된
좁쌀
한알이
깨우치는
위대한

수령부과 함께
어머님복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력사의
은 갓
시련과
풍파속에서
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불멸의
생명력이
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선군혁명력사
를
되새겨
볼수록
어찌하여
어머님수령님과
함께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영상이
가슴
가득
어려오는
것인가.

어머님수령님께서
생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한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감염하는
그런
역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께서는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어머니가
하시던
마지막
마음과
힘을
입고
바라주던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의지를
가다듬
곤
하였다
고
뜨겁게
회고
하시었다.

새겨보던
항일유격대의
첫 대오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어주시는
밥을
먹고
어머님의
손길이
닿은
군복과
신발을
신고
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신
붉은기
를
휘날리며
어머님앞에서
첫
사열을
받으면서
떠났다.

그렇게
안도의
수림을
떠난
유격대
가
천교령의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촉한을
이겨내고
로아령의
깊고
험한
산중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꽃피어
전진할
수
있을
것은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의
유산과
같은
조성이
된
좁쌀
한알이
깨우치는
위대한

수령부과 함께
어머님복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력사의
은 갓
시련과
풍파속에서
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불멸의
생명력이
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선군혁명력사
를
되새겨
볼수록
어찌하여
어머님수령님과
함께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영상이
가슴
가득
어려오는
것인가.

어머님수령님께서
생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한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감염하는
그런
역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께서는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어머니가
하시던
마지막
마음과
힘을
입고
바라주던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의지를
가다듬
곤
하였다
고
뜨겁게
회고
하시었다.

새겨보던
항일유격대의
첫 대오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어주시는
밥을
먹고
어머님의
손길이
닿은
군복과
신발을
신고
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신
붉은기
를
휘날리며
어머님앞에서
첫
사열을
받으면서
떠났다.

그렇게
안도의
수림을
떠난
유격대
가
천교령의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촉한을
이겨내고
로아령의
깊고
험한
산중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꽃피어
전진할
수
있을
것은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의
유산과
같은
조성이
된
좁쌀
한알이
깨우치는
위대한

수령부과 함께
어머님복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력사의
은 갓
시련과
풍파속에서
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불멸의
생명력이
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선군혁명력사
를
되새겨
볼수록
어찌하여
어머님수령님과
함께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영상이
가슴
가득
어려오는
것인가.

수령부과 함께
어머님복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력사의
은 갓
시련과
풍파속에서
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불멸의
생명력이
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선군혁명력사
를
되새겨
볼수록
어찌하여
어머님수령님과
함께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영상이
가슴
가득
어려오는
것인가.

어머님수령님께서
생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한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감염하는
그런
역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께서는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어머니가
하시던
마지막
마음과
힘을
입고
바라주던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의지를
가다듬
곤
하였다
고
뜨겁게
회고
하시었다.

새겨보던
항일유격대의
첫 대오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어주시는
밥을
먹고
어머님의
손길이
닿은
군복과
신발을
신고
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신
붉은기
를
휘날리며
어머님앞에서
첫
사열을
받으면서
떠났다.

그렇게
안도의
수림을
떠난
유격대
가
천교령의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촉한을
이겨내고
로아령의
깊고
험한
산중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꽃피어
전진할
수
있을
것은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의
유산과
같은
조성이
된
좁쌀
한알이
깨우치는
위대한

수령부과 함께
어머님복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력사의
은 갓
시련과
풍파속에서
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불멸의
생명력이
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선군혁명력사
를
되새겨
볼수록
어찌하여
어머님수령님과
함께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영상이
가슴
가득
어려오는
것인가.

어머님수령님께서
생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한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감염하는
그런
역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께서는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어머니가
하시던
마지막
마음과
힘을
입고
바라주던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의지를
가다듬
곤
하였다
고
뜨겁게
회고
하시었다.

새겨보던
항일유격대의
첫 대오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어주시는
밥을
먹고
어머님의
손길이
닿은
군복과
신발을
신고
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신
붉은기
를
휘날리며
어머님앞에서
첫
사열을
받으면서
떠났다.

그렇게
안도의
수림을
떠난
유격대
가
천교령의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촉한을
이겨내고
로아령의
깊고
험한
산중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꽃피어
전진할
수
있을
것은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의
유산과
같은
조성이
된
좁쌀
한알이
깨우치는
위대한

수령부과 함께
어머님복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력사의
은 갓
시련과
풍파속에서
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불멸의
생명력이
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선군혁명력사
를
되새겨
볼수록
어찌하여
어머님수령님과
함께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영상이
가슴
가득
어려오는
것인가.

어머님수령님께서
생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한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감염하는
그런
역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께서는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어머니가
하시던
마지막
마음과
힘을
입고
바라주던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의지를
가다듬
곤
하였다
고
뜨겁게
회고
하시었다.

새겨보던
항일유격대의
첫 대오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어주시는
밥을
먹고
어머님의
손길이
닿은
군복과
신발을
신고
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신
붉은기
를
휘날리며
어머님앞에서
첫
사열을
받으면서
떠났다.

그렇게
안도의
수림을
떠난
유격대
가
천교령의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촉한을
이겨내고
로아령의
깊고
험한
산중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꽃피어
전진할
수
있을
것은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의
유산과
같은
조성이
된
좁쌀
한알이
깨우치는
위대한

수령부과 함께
어머님복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력사의
은 갓
시련과
풍파속에서
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불멸의
생명력이
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선군혁명력사
를
되새겨
볼수록
어찌하여
어머님수령님과
함께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영상이
가슴
가득
어려오는
것인가.

어머님수령님께서
생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한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감염하는
그런
역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께서는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어머니가
하시던
마지막
마음과
힘을
입고
바라주던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의지를
가다듬
곤
하였다
고
뜨겁게
회고
하시었다.

새겨보던
항일유격대의
첫 대오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어주시는
밥을
먹고
어머님의
손길이
닿은
군복과
신발을
신고
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신
붉은기
를
휘날리며
어머님앞에서
첫
사열을
받으면서
떠났다.

그렇게
안도의
수림을
떠난
유격대
가
천교령의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촉한을
이겨내고
로아령의
깊고
험한
산중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꽃피어
전진할
수
있을
것은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의
유산과
같은
조성이
된
좁쌀
한알이
깨우치는
위대한

수령부과 함께
어머님복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력사의
은 갓
시련과
풍파속에서
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불멸의
생명력이
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선군혁명력사
를
되새겨
볼수록
어찌하여
어머님수령님과
함께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영상이
가슴
가득
어려오는
것인가.

수령부과 함께
어머님복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력사의
은 갓
시련과
풍파속에서
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불멸의
생명력이
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선군혁명력사
를
되새겨
볼수록
어찌하여
어머님수령님과
함께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영상이
가슴
가득
어려오는
것인가.

어머님수령님께서
생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한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감염하는
그런
역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께서는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어머니가
하시던
마지막
마음과
힘을
입고
바라주던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의지를
가다듬
곤
하였다
고
뜨겁게
회고
하시었다.

새겨보던
항일유격대의
첫 대오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어주시는
밥을
먹고
어머님의
손길이
닿은
군복과
신발을
신고
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신
붉은기
를
휘날리며
어머님앞에서
첫
사열을
받으면서
떠났다.

그렇게
안도의
수림을
떠난
유격대
가
천교령의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촉한을
이겨내고
로아령의
깊고
험한
산중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꽃피어
전진할
수
있을
것은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의
유산과
같은
조성이
된
좁쌀
한알이
깨우치는
위대한

수령부과 함께
어머님복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력사의
은 갓
시련과
풍파속에서
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불멸의
생명력이
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선군혁명력사
를
되새겨
볼수록
어찌하여
어머님수령님과
함께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영상이
가슴
가득
어려오는
것인가.

어머님수령님께서
생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한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감염하는
그런
역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께서는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어머니가
하시던
마지막
마음과
힘을
입고
바라주던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의지를
가다듬
곤
하였다
고
뜨겁게
회고
하시었다.

새겨보던
항일유격대의
첫 대오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어주시는
밥을
먹고
어머님의
손길이
닿은
군복과
신발을
신고
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신
붉은기
를
휘날리며
어머님앞에서
첫
사열을
받으면서
떠났다.

그렇게
안도의
수림을
떠난
유격대
가
천교령의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촉한을
이겨내고
로아령의
깊고
험한
산중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꽃피어
전진할
수
있을
것은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의
유산과
같은
조성이
된
좁쌀
한알이
깨우치는
위대한

수령부과 함께
어머님복을
누리는
여기에
바로
력사의
은 갓
시련과
풍파속에서
도 그 어떤

영원히 사령부결에

작사 김석천
작곡 오문선

추억을 안고 (♩=112)

1. 밀림에 눈 - 내 려 도 - 사령 부 - 결 에
따뜻한 봄 - 빛 되 어 - 사령 부 - 결 에
꿈 에 도 장군님 안녕바 라 며 설 한 풍 속에도 - 꽃 피 율 네
아 - 어 머 님 우 리 어 - 머 님
언 제나 변함 없 이 언 제나 변함 없 이 사령 부 - 결 에

- 적탄이 비발쳐도 사령부결에
한몸이 방패되어 사령부결에
백두광야의 그 어테나
조국의 운명 지킨 자욱 있네
아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사령부결에
- 오늘도 주작봉우에 높이 서시여
태양을 옹위하여 사령부결에
전사가 설 자리 어딘가를
천만의 가슴에 새겨주네
아 어머니 우리 어머니
영원히 변함없이 영원히 변함없이
사령부결에

경위대원들을 위해 바치신 사랑

해방후 경위대원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된 전위투사들로 키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날 선군으로 강대한 내 조국의 위용과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는것이 조선혁명을 지키는 길이라는데는 우리 어머니의 절대불변의 신조였습니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언제나 백두산 시절처럼 경위대원들에게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어느날 경위대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지난날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을 보위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간주하였습니다. 숙영지에 들면 먼저 안전한 곳에 사령부의 천막자리를 잡았으며 제일 강력한 기관총들은 언제나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있었습니다. ...

그러시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날날 항일혁명투사들은 임무를 받고 떠나갈 때나 돌아올 때나 사령관동지의 건강과 안녕부터 먼저 물어보는것이 상봉과 작별인사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백두산녀장군으로부터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경위대원들은 크나큰 감동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들을 자애로 넘치신 눈길로 바라보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을 보위하는 가장 영예로운 초소에 선 경위대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김일성장군님의 신변을 보위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위대원들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들의 정치학술에 대하여서도 일일이 알아보시고 대오안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도록 당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위대원들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어느날 경위대의 사격 훈련장을 돌아다니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사격훈련을 지도해주시면서 그들의 사격성적이 좋지 못하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소대장의 훈련지도에 원인이 있었다. 다음날 그 소대장을 사격장으로 조종하부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서투른 사격동작과 사격술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훈련을 좀하면 얼마든지 사격술을 높일 수 있겠다고, 자신과 함께 사격술을 편마하여 장군님을 호위하는 경위대원들을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키워나가라고 그들과 그루해주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그의 사격동작은 점진적으로 배웠고 사격속도도 급격히 높아졌다. 그리하여 소대장의 성장과 함께 소대원들의 사격술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모두가 명사수로 자랑하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위대원들이 규정과 교범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게 하고 대렬훈련도 많이 하여 정예대로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 날 김정숙동지께서 경위대원들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신 이야기가 그 얼마나 무수히 펼쳐났던가. 보조병들에게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에 물을 달구어주시고 발갈게 통을 만들어주신 이야기, 정원에서 가우신 꽃고추, 꽃장님이, 찻물과일도 먼저 보내주시고 명절날이면 경위대원들에게 별식을 차려주시려고 한밤을 지새우신 이야기...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다심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경위대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끼에서 보위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로 자랑스러웠던것이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김 석 천

항일의 나날에 새겨진 거룩한 자욱

혁명전사의 의무로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그 어떤 사심도 모르시였다.

주제 26 (1937)년 겨울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동강방향으로 진출하시기 직전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정숙동지께 제봉대원들로 무어진 한계 소대를 책임지고 부후물영에 남아 이듬해 봄작전을 위한 준비사업과 함께 동군정학을 하고 훈련을 할데 대한 임무를 주시였다.

사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반년 남짓하게 도천리-신과공작을 끝내고 가재수에까지 다녀오신 뒤였다.

오래 동안 주력부대와 떨어져 일무를 수행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사실 부대를 따라가고싶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시였다.

부대의 한 지휘관도 김정숙동지의 그 심정을 헤아려 원정에 참가하도록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드려보겠다고 하였고 있었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때는 안된다고,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부대를 따라가고

실은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 이라고, 그러면 누가 장백에 남아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관철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사령관동지께서 정해주시신 초소를 지키는것이 곧 혁명전사의 의무라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혁명임무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자세였고 릉장이였다.

정재, 방패가 되시여

주제 29 (1940)년 3월 출간된주제였다.

흥기하갈짜기에서 적아간에 치열한 사격전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어떻게 겁을 뺐는지 적의 한 무리가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고지의 뒤를진으로 은밀히 기어 들고있었다.

사령부 가까이에서 적들에게 맹사격을 하고계시던

의 의무라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혁명임무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자세였고 릉장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을 발견하고 반대쪽봉선으로 유인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목숨바쳐서라도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지키시려는 일념으로 총을 쓰시다가는 말리시고 말리시다가는 또 총을 쏘곤 하시기였다. 김정숙동지의 이러한 희생적인 노력으로 사령부에 조성되였던 위험이 가서지게

되었다.

사령부로 달려온 경위대원들은 김정숙동지의 배낭우에 얹혀있는 양재기에 두군데나 난 총알자리를 보며 놀라와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안심을 하라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사하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사령부의 안전을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사적이 깃든 그 양재기는 조선혁명박물관 전립장에 보존되어 오늘날도 참관자들에게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친위전사로 빛나는 고귀한 삶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온 나라 강산에 대하마냥 끓어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친위전사, 충실한 혁명동지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위대한 수령님을 총대로 결사옹위하였던 백두산시절처럼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충직하게 받드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친위전사의 모습으로 깊이 새겨져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지는 나에게 대한 충실성이 매우 지극한 동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는 길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통일번영이 있다.

이것은 김정숙동지의 가슴속에 여백 없이 새겨져 빛나고있다.

이것이 김정숙동지의 가슴속에 여백 없이 새겨져 빛나고있다.

이것이 김정숙동지의 가슴속에 여백 없이 새겨져 빛나고있다.

이것이 김정숙동지의 가슴속에 여백 없이 새겨져 빛나고있다.

그래서 해마다 찾아오는 이날을 우리 수령님께서 언제나 심중에 안고계신것이 아니라.

김정숙동지의 탄생 60돐이 되던 날이었다.

그날 밤길도록 집무에 열중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이날이 김정숙동무의 생일이라고, 그래서인지 오늘은 그에 대한 생각으로 잠이 울것 같지 않다고 뜨거움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나서 자신께서는 해방후 일감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몇시간밖에 자지 못하였는데 밤잠을 들어올 때면 김정숙동무가 맞아주곤 하였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김정숙동지를 추억하시며 잊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그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신하시였을 때였다.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가슴아프지 않았다고 하시며 혁명투사들과 항일혁명렬사유가족들도 있었고 남조선의 정경도 있었으며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깊은 인연을 맺으신 다른 나라의 손님들도 있었다.

당시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있는 성의를 다하시였다.

백두산녀장군께서는 그 많은 손님들을 위하여서는 모든것을 다 바치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특전도 바라지 않으시였다.

언제인가 한 항일혁명투사가 김정숙동지께 해방전 조국에서 편히 쉬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린적이 있었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자신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장군님의 혁명동지이고 친위전사이며 나라를 보내고계시는 우리 수령님을 나라를 보내고계시는 우리 수령님을 경건히 그리시며 건국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신 김정숙동지.

를 잊지 못하시며 추억하신것도 그래서이다.

김정숙동지께서 것처럼 소박하고 평범하게 생활하시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충직하게 받드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로고를 우리 정경 다 알고있었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추억깊이 그려보신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결코 소박하고 근면하신 모습만이 아니었다. 그의 심중에 깊이 새겨진 백두산녀장군의 참된 모습은 수령님의 혁명사업을 보좌하시려는 일이라면 그 어떤 험한 일도 거기에 맡아안으신 가장 충직한 혁명동지의 빛나는 모습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혁명동지들의 대오속에 숭고한 한결같은 길이 빛나는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동지.

우리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끝없는 충실성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뜨거움에 젖게 한다.

주제 36 (1947)년 삼복철에 있는 일이다.

어느날 데에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척 놀라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들고나오시는 세수물 소꿉이에 얼음덩어리가 동동 떠있었기 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기만 해도 땀이 식을듯한 한 물에 손을 담그시며 정말 시원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더운 데에 얼음이 어디서 왔는가고 물으시였다.

수건을 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곁에 서시려는 김정숙동지의 안방에는 그저 맑은 미소만이 피어있을뿐이었다. 잠시후 방안에서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시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였다.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방안 한쪽에는 큰 얼음덩어리가 담긴 그릇이 놓여있었기때문이었다.

그것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말 영문을 알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의우시였다.

사실 그 얼음은 전해 겨울에 김정숙동지께서 대동강에서 가져다가

버거속에 차곡차곡 묻어 정성스럽게 간사하신것이였다.

지금은 어느 계절이나 맹장고들에서 손쉽게 얻을수 있는 얼음이지만 그때에는 그런 맹장을 구하기가 우리 수령님의 데에 없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께 얼음이 생기게 된 사연을 거듭 물으시였다.

이윽고 사연을 알게 되신 그이께서는 눈물이 뜨겁게 달아오르시였다.

겨울이면 온화히온한 얼음덩어리, 그것을 한여름까지 간사하는 방법을 알고보면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할수 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 누구도 따지지 못할 충정으로 지나가나니 신장을 불태우시는 김정숙동지께서만 생각하실수 있는 얼음덩어리에 대한 잊지 못할 이야기.

이 가슴뜨거운 일화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시었던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품도를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오늘날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고있다.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된 조선혁명, 자기 령도자에게 끝없이 충실한 동지들이 사랑과 의리로 굳게 뭉쳐 승리와 영광의 자욱만을 아로새겨온 조선혁명.

경애하는 장군님과 사상도 뜻도 운명도 같이하는 선군혁명동지들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전진하고있는 조선혁명은 천만군민에게 이렇게 채우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시었던 김정숙동지처럼 수령의 동지가 되라!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충실성을 따라 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위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불타는 곁에 동참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동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선군혁명의 앞길에 찬란한 빛을 뿌리며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동철

백두산호위장군의 견결한 모습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는것은 조선혁명을 지키는 길이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시기에도 이것을 철석같은 신조로 삼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보장하는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혁명의 길에 나선 모든 사람이 따라배워야 할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단성혁명가였습니다.」

주제 35 (1946)년 11월 어느날 저녁이었다.

새 조국건설을 위해 낮에 밤을 이어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도 지력에 찾아온 일군들을 만나시어 친지한 대화를 하고계시였다. 그런데 별안간 어머신과 《광!》하고 요란한 폭음이 울려왔다.

이어 전등불이 꺼졌다. 일군들모두는 긴장된 분위기

에 휩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황을 알아보시지 못해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하시며 때였다.

그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운문으로 출입문을 막아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 안됩니다. 장군님,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라고 절결히 말씀드리였다.

어머수령님께서는 태연한 자세로 별일없을것이라고, 자신께서 알아보라고 하시며 그냥 문을 나서려고 하시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시며 수령님을 막아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먼저 밖으로 달려나가시였다.

밖의 정황을 철저히 확인하신 후 김정숙동지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정진이 된 사연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얼마후 전등불이 다시 켜졌다.

전등불이 켜지면 순간 방안에 있던 일군들과

경위대원들은 잠짝 놀랐다.

수령결사옹위의 총대를 여세게 틀어잡으시고 문가에 성벽마냥 서서서는 백두산호위장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이 안겨왔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손에 땀을 겨두지 않으시고 또다시 밖으로 나가시였다. 그러시고는 저택주변의 구석구석까지 일일이 다 돌아다니시시며 방안으로 들어오시였다.

그날 일군들은 어떤 정황속에서도 어머수령님의 안녕부터 먼저 생각하시며 언제나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김정숙동지의 거룩한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아안았다.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한몸바쳐 지켜드리신 전설적호위장군의 그날의 모습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생명으로 간직하신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번쩍처럼 새겨져 오늘날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강철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경축음악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 경축음악회가 24일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군대, 국가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무력기관, 근로

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단성원들이 공연에 초대되었다.

관현악서곡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로 시작된 무대에는 관현악 《장군님, 배마 타고 달리시라》,

《매혹》,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꽃잎을 삼일포의 메아리》, 피치카토를 위한 현악합주 《이 강산 하도 좋아》, 교향원곡 《당에 드리는 노래》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주제의 건군위업을 끝없이 빛내시는데 응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4일 수도 평양과 각도, 시, 군소재지들에서 진행되었다.

《경계를 받으시라》의 노래가 울려 퍼져서 무도회들이 시작되었다.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제의 선군혁명위업을 받들시여 인민군대를 무적불침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일대 역할을 안아 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환희의 춤바다를 펼쳐놓았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10일에 개막되었던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폐막

최종해동지와 판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그는 백두산내장군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진행된 경기대회에서 나라의 체육발전

이바지할 좋은 성과들이 기록되었다고 하면서 선수, 감독들이 당의 체육정책을 받들고 훈련에서 더 많은 힘을 쏟을 것을 당부하였다.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4일 수도 평양과 각도, 시, 군소재지들에서 진행되었다.

《경계를 받으시라》의 노래가 울려 퍼져서 무도회들이 시작되었다.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제의 선군혁명위업을 받들시여 인민군대를 무적불침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일대 역할을 안아 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환희의 춤바다를 펼쳐놓았다.

혁명 위대한 어머니의 넋을 꽃피우며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위력을 떨쳐갈 청년학생들의 의지를 담아 《장군님의 노래가 되자》, 《전선에서 만나다》의 노래와 조화를 이루며 다채로운 춤물들이 연이어 펼쳐지는 무도회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고조를 이루었다.

각지에 펼쳐진 무도회는 백두산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을 혁명의 명맥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주제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갈 청년학생들의 열의를 잘 보여 주었다.



실속있게 꾸러진 학교로 되기까지

김척수 산전문학교 일군들의 사업에서 김척수 산전문학교에서 교육환경과 조건을 높이는 수준에서 개선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산전문학교 일군들의 사업에서

김척수 산전문학교에서 교육환경과 조건을 높이는 수준에서 개선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사들은 늘 공부를 열심히 하여 립상과학리론도 소유하고 세계의학발전전세대로 갈 앞머리까지 실력을 가진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는 과정을 통하여 풍부한 립상경험을 쌓음으로써 어떤 복잡한 환자가 제기되어도 제때 능숙하게 치료할수 있는 능력있는 의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연안군인민병원 일군들의 사업에서

연안군인민병원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력 주민들의 존경과 신뢰감은 날이 더해간다.

감사편지가 늘어나는 사연

연안군인민병원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로병의 마을

로병의 마을 해산리 성후동 박춘보로인 절에는 손에 총을 잡고 진화의 불비속을 헤치고 그후 수십년간 여러 혁명초소들에서 조국을 받들며 성실한 삶을 바쳤다.

인민의 기쁨속에 찾는 삶의 보람

인민의 기쁨속에 찾는 삶의 보람 순천시 은덕원 지배인 남명숙동무와 종업원들

참된 교육자

참된 교육자 작주군 옥강중학교 정성찬 동무는 후대교육사업에 모든 것을 바쳐가고있는 참된 교육자이다.

백성근

백성근 작주군 다사협동농장 제6작업반원들이 주어진 자갈을 안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였다.

조중 두 나라 정부사이의 과학 기술협조위원회 제44차회의 정서

조중 두 나라 정부사이의 과학 기술협조위원회 제44차회의 정서 [베이징 1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4차회의 정서가 24일 베이징에서

주인된 자각

주인된 자각 작주군 다사협동농장 제6작업반원들이 주어진 자갈을 안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였다.

백성근

백성근 작주군 다사협동농장 제6작업반원들이 주어진 자갈을 안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였다.

로병의 마을

로병의 마을 해산리 성후동 박춘보로인 절에는 손에 총을 잡고 진화의 불비속을 헤치고 그후 수십년간 여러 혁명초소들에서 조국을 받들며 성실한 삶을 바쳤다.

참된 교육자

참된 교육자 작주군 옥강중학교 정성찬 동무는 후대교육사업에 모든 것을 바쳐가고있는 참된 교육자이다.

백성근

백성근 작주군 다사협동농장 제6작업반원들이 주어진 자갈을 안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였다.

로병의 마을

로병의 마을 해산리 성후동 박춘보로인 절에는 손에 총을 잡고 진화의 불비속을 헤치고 그후 수십년간 여러 혁명초소들에서 조국을 받들며 성실한 삶을 바쳤다.

주인된 자각

주인된 자각 작주군 다사협동농장 제6작업반원들이 주어진 자갈을 안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였다.

참된 교육자

참된 교육자 작주군 옥강중학교 정성찬 동무는 후대교육사업에 모든 것을 바쳐가고있는 참된 교육자이다.

백성근

백성근 작주군 다사협동농장 제6작업반원들이 주어진 자갈을 안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였다.

로병의 마을

로병의 마을 해산리 성후동 박춘보로인 절에는 손에 총을 잡고 진화의 불비속을 헤치고 그후 수십년간 여러 혁명초소들에서 조국을 받들며 성실한 삶을 바쳤다.

주인된 자각

주인된 자각 작주군 다사협동농장 제6작업반원들이 주어진 자갈을 안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였다.

참된 교육자

참된 교육자 작주군 옥강중학교 정성찬 동무는 후대교육사업에 모든 것을 바쳐가고있는 참된 교육자이다.

백성근

백성근 작주군 다사협동농장 제6작업반원들이 주어진 자갈을 안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였다.

로병의 마을

로병의 마을 해산리 성후동 박춘보로인 절에는 손에 총을 잡고 진화의 불비속을 헤치고 그후 수십년간 여러 혁명초소들에서 조국을 받들며 성실한 삶을 바쳤다.

주인된 자각

주인된 자각 작주군 다사협동농장 제6작업반원들이 주어진 자갈을 안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였다.

참된 교육자

참된 교육자 작주군 옥강중학교 정성찬 동무는 후대교육사업에 모든 것을 바쳐가고있는 참된 교육자이다.

백성근

백성근 작주군 다사협동농장 제6작업반원들이 주어진 자갈을 안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였다.

로병의 마을

로병의 마을 해산리 성후동 박춘보로인 절에는 손에 총을 잡고 진화의 불비속을 헤치고 그후 수십년간 여러 혁명초소들에서 조국을 받들며 성실한 삶을 바쳤다.

주인된 자각

주인된 자각 작주군 다사협동농장 제6작업반원들이 주어진 자갈을 안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였다.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

보도원바와 같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끝끝내 연평도일대에서 포사격훈련을 강행한 남조선피뢰들이 반공화국군사적도발책 등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광범적으로 벌어진 이번 포사격훈련은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와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내외의 한결같은 요구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정세악화를 노린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이다.

피뢰들은 이번 포사격훈련이 《방어》를 위한것이라는지, 저들수역에서 벌이는 《주기적이며 통상적인 훈련》이라는지 뛰니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해나섰다. 하지만 그것은 불법적인 《북방한계선》을 근거로 강행된것으로서 그런 궤변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피뢰들의 이번 포사격훈련은 《북방한계선》을 고수하여 우리의 명토가까지에 북침출발진지를 끌어다붙이도록 세 전성도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흉심으로 비롯된것이라는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피뢰군부의 이번 포사적도발은 그것이 현정세를 통제할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서도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라는데 일층중요성이 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지난 11월 23일 연평도일대의 우리측 명토에 포사격을 가하는 도발을 우리측 혁명부대의 즉사적이고 단호한 대응타격을 받고 즉사하였다.

하지만 호전광들은 거기서 교훈을 찾았을지 모르나, 그들은 이번 포사적도발에 대해 악에 받쳐 고대하며 리성을 잃고 헤매었다. 피뢰들은 연평도포격사건의 화약내가 채 가셔지기도 전에 미핵항공모

전성연습을 강화한다. 《연합대대세》를 취한다 하면서 피뢰들에게 모의적인 전성평가를 붙여넣었다. 미군부인 물들은 말로는 북남사이의 《교전확대》를 엄중히 위협하는 도발을 반복하 하 하는 미제나 그런 내용은 가려 못보고 미국의 전성수행인이 되어 민족의 운명을 행사》에 대해 승인해주고 북남교전시 《대북정보》제공은 물론 《F-2A 펄러》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데 아니다. 남조선군부대기뢰들이 연평도에서 지난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포사격훈련을 하겠다고 했을 때 리성을 가지고 사태를 주시하면 나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포사적도발중지를 요구했지만 유독 미국군은 《정전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공공연회 비호부둔한다. 그것으로도 성치치 않아 연평도포사격훈련에 통신, 의뢰지인 등의 명목으로 미제침략군 20명을 참가시키고 《참판단》의 의뢰를 씌운 어췌이며 그들이 끌어들이었으며 저들의 방대한 침략군을 출동해오게 하였다. 이것이 누가 보아도 리성을 잃고 헤매는 피뢰들의 등을 때리며 온 행위이라하는 명백하다. 결국 미국은 새로운 무장도발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고 미친 것이 남침하는 피뢰호전광들에게 불을 지워주었다.

미제호전광들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출동을 야기시키고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감으로써 아직 결착을 짓지 못하고있는 남한의 후면대비행장문제를 해결하고 남조선에서 《자유무역협정》반대기운을 높일것을 기도하고 있다. 또한 남조선피뢰들을 더욱 틀어쥐고 동북아시아지역

괴뢰역도의 경망스러운 망발

남조선전진자가 철갑모를 쓰고 대결전쟁전선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지난 23일 전선동부의 최전방 괴뢰군 부대에 찾아가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대반격》을 가해야 한다.》. 《인내》가 필요없으며 《가차없이 대응해야 한다.》. 《나리 하는 극히 도발적인 망발을 제쳤다. 지어는 우리의 사회주의정견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악담까지 늘어놓으며 도리어 제편에서 《호전적》이라는 수작을 내뻗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대한 최악의 도발이고 상상도 하지 못할 대결전쟁전동이다. 지금껏 괴뢰군부 장관과 괴뢰총리부장관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구내대결판사자들이기에 대해 이러저러한 도발적악담을 늘어놓았지만 여초처럼 그렇듯 격분스러운 망발을 내뻗은것은 처음이다.

리명박역도가 우리와 직접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최전방의 괴뢰군부대에까지 기어나와 전정열을 교묘한것은 그 누구의 《도발》을 실을 더욱 부각시켜 조선반도정세를 대결과 전쟁으로 계속 몰아가려는 극히 무분별한 망동이다.

지금 괴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광기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반공화국광신자들은 입에서 뱉어 나가듯이, 구멍이 나가듯이 모르고 우리를 모함하고 북남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악담들을 마구 쉼대대고있으며 북침을 위한 무력중장과 전성수행에 날이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에 괴뢰부총리가 전전지대에 나타나 그 누구에 대한 《응징》을 떠벌린것은 알려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조선전진자까지 나서서 《대반격》과 《가차없는 대응》을 부르짖었다. 이것은 남조선보수세대의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과 북침전쟁연습책동이 다름아닌 리명박역도의 각본과 극단적인 대결기조에 따라 연출된 계획적인 반공화국수행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지금 리명박역도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헤매고있다. 이자는 일은 제가 저질러놓고 세계의 면전에서 자기가 강하다는 인상을 풍겨보려고 입만 벌리면 《응징》이요, 《대반격》이요 뭐요 하는데 경망스럽기 짝이 없다. 역도는 자기 처지에 무엇을 계산에 넣어야 하고 남지 말아야 할 계산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뛰고 있다. 세계인론들이 역도의 호전적인 처사를 두고 어린아이같다고 조소하는것은 우연치 않다. 역도가 이번 최전선에 나서서 얻은것이 반대로 이런 오명뿐이다.

이번 연평도포사적도발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이 다시금 명백해졌다.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이 미국의 부수집필에 연평도포사적훈련을 기어이 강행함으로써 리명박의 무분별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리명박역도가 《호전적》이니 뭐니 하며 악에 받쳐 고대했지 그것은 드러나지, 전쟁광신자도 락인적책 고립과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자의 단말마적인 너드러보밖에 달리될것이 없다.

최근 괴뢰역도의 반공화국수행은 리명박의 망발을 견뎌내지 못해서 경망스러운 망발을 내뻗었다. 리명박은 이번 저들의 포사적에 대한 우리의 무시를 낙담했지 그것은 물론이다. 전쟁광신자도 없고 담도 없으며 사고도 바로할 줄 모르는 자들이 께기를 부리는 법이다.

리명박역도는 현존중에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자중하는것이 좋다.

오스트리아 단체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연습을 규탄

오스트리아 원에 있는 김일성주제사상영구청년소조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연습을 규탄하여 얼마전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남조선괴뢰들이 또다시 군사연습을 벌여놓는데 대

조남수 위협한 단계에 이른 3각군사동맹

최근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들이 군사적결탁과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이 본격화되고있어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워싱턴에서 미국, 일본, 남조선 3각의 무장합동이라는 것이 있었다. 여기에 피뢰들은 그 누구의 《도발》이니 뛰니 하고 범접 고대하며 군사적결탁과 공조를 적극 구걸하였는가 하면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과 일미안정보장조약에 기초한 《서로의 책임》과 《확고한 약속》을 상징들과 재확인하는 높음을

진언을 하였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과 일미안정보장조약에 기초한 《서로의 책임》과 《확고한 약속》을 상징들과 재확인하는 높음을

진언을 하였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과 일미안정보장조약에 기초한 《서로의 책임》과 《확고한 약속》을 상징들과 재확인하는 높음을

진언을 하였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과 일미안정보장조약에 기초한 《서로의 책임》과 《확고한 약속》을 상징들과 재확인하는 높음을

평화파피자들을 용서치 않으니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생산 현장에서 취한 우리 공작의 전례로 동계군은 원수들의 면상을 무쇠마치로 뒤쳐 후려갈것처럼 가슴이 후련하였다. 누구나 똑똑히 보았을것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파피자는 누구이고 평화수호자는 누구인가를.

미제와 그의 거드방에 불어 명줄을 이어가는 남조선피뢰들이 정말 가증스럽게 그지였다. 동계대결수행으로 북남판계를 완전히 파괴하다 못해 이제는 우리에게 포사적도발까지 걸며 전쟁의 불정을 터치려고 발광하고있으니 어찌 그렇지 않았는가.

피뢰들의 이번 포사적도발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북침전쟁을 기어 이 일으키려는 흉심의 발로라 다른것 이 아니다. 남조선호전광들의 연평도포사적도발을 통하여 우리 공작로동계

금의 계급의식은 더욱 투철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목숨으로 사수할 의지도 비상히 높아졌다. 우리는 선군의 총대우에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평화가 있음을 다시금 똑똑히 깨달았다.

천만군민을 혁명적대고조제로 부른 위대한 당의 호소하며 총산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수도시민들에게 질풍은 시로물들 더 많이 공급하였는 우리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결심이다.

우리는 내외호전광들의 새 전성도발 책동을 생시주시는 심정으로 들끓는 기수 담겨 생산투쟁과 지휘를 더 전진하였다. 하여 우리가 어떻게 원수들의 도발을 짓부셔도 조국평화에 행복의 락원을 건설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평화파피자들과 용서치 않으니

평화파피자들과 용서치 않으니

평화파피자들과 용서치 않으니

평화파피자들과 용서치 않으니

평화파피자들과 용서치 않으니

평화파피자들과 용서치 않으니

평화파피자들과 용서치 않으니

평화파피자들과 용서치 않으니

방글라데시인사 콩크리트장벽의 해체를 요구

방글라데시인민혁명 위원장 가리비 네와즈가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콩크리트장벽이 구축된지 31년이 된것과 관련하여 1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남조선괴뢰당이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구축한 콩크리트장벽은 조선민족의 분열과 북남대결의 상징이라고

독재 <정권> 반대 투쟁을 선언

최근 남조선에서 다음해에산 안치러와 관련한 리명박계당의 독재적당동을 단죄규탄하는 각계의 투쟁이 세계에 일어나고있다.

남조선의 진보전대는 9일 성명을 발표하여 보수계당의 반민주적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8일 《한나라당》 페거리들이 4대강정비공사판련에산 등을 포함한 다음해에산 안치러와 각종 악법안들을 남치기로 통과시키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한나라당》의 반민주적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독재 <정권> 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민주노동당 성원들은 10일 서울에서 역적계당의 독재적당동을 항의하여 비상시국 통성에 돌입하였다.

통성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한나라당》이 다음해에산안을 남치기로 통과시킨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폭거라고 단죄하고 이 폭력사태의 주범은 다름아닌 리명박독재 <정권> 이라고 까뻐하였다.

그들은 제법과 부수층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무슨것이든 가리지 않는 독재 <정권> 을 퇴진시키기 위해 진보세력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이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민주당은 리명박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여 전면 투쟁을 선언하였다.

조국수호의 성전에 몸바쳐나서겠다

지금 우리 화합공성 정무원들의 가슴마에는 반공화국대결전성소들의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미제와 괴뢰피에 대한 분노의 피가 끓고있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기기가 차근차근 이 땅에 스산한 대결의 광풍을 몰아치고 북남판계를 여지없이 파란시킨 역적부리들이 이제는 외세 통에 예고 온 겨레의 머리에 핵 전쟁의 참화를 들의우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응징》나발을 붙여대며 《국회》를 폭격하고 독재의 만장판으로 만들것이다. 《천서민정부》니, 《공정사회》니 하고 떠드는 현 <정권> 의 이중성이 가증스럽다고 규탄하였다.

이런 예산안남치기처리에 시작부터 뒤쳐져서 청와대가 아니라 까뻐하면서 시몬은 《국회》를 폭격하고 독재의 만장판으로 만들것이다. 《천서민정부》니, 《공정사회》니 하고 떠드는 현 <정권> 의 이중성이 가증스럽다고 규탄하였다.

이런 예산안남치기처리에 시작부터 뒤쳐져서 청와대가 아니라 까뻐하면서 시몬은 《국회》를 폭격하고 독재의 만장판으로 만들것이다. 《천서민정부》니, 《공정사회》니 하고 떠드는 현 <정권> 의 이중성이 가증스럽다고 규탄하였다.

이런 예산안남치기처리에 시작부터 뒤쳐져서 청와대가 아니라 까뻐하면서 시몬은 《국회》를 폭격하고 독재의 만장판으로 만들것이다. 《천서민정부》니, 《공정사회》니 하고 떠드는 현 <정권> 의 이중성이 가증스럽다고 규탄하였다.

이런 예산안남치기처리에 시작부터 뒤쳐져서 청와대가 아니라 까뻐하면서 시몬은 《국회》를 폭격하고 독재의 만장판으로 만들것이다. 《천서민정부》니, 《공정사회》니 하고 떠드는 현 <정권> 의 이중성이 가증스럽다고 규탄하였다.

이런 예산안남치기처리에 시작부터 뒤쳐져서 청와대가 아니라 까뻐하면서 시몬은 《국회》를 폭격하고 독재의 만장판으로 만들것이다. 《천서민정부》니, 《공정사회》니 하고 떠드는 현 <정권> 의 이중성이 가증스럽다고 규탄하였다.

이런 예산안남치기처리에 시작부터 뒤쳐져서 청와대가 아니라 까뻐하면서 시몬은 《국회》를 폭격하고 독재의 만장판으로 만들것이다. 《천서민정부》니, 《공정사회》니 하고 떠드는 현 <정권> 의 이중성이 가증스럽다고 규탄하였다.

이런 예산안남치기처리에 시작부터 뒤쳐져서 청와대가 아니라 까뻐하면서 시몬은 《국회》를 폭격하고 독재의 만장판으로 만들것이다. 《천서민정부》니, 《공정사회》니 하고 떠드는 현 <정권> 의 이중성이 가증스럽다고 규탄하였다.

정치적 후진성을 보여주는 깡패정당의 전횡

수락장으로 만들도록은 각계의 정각과 분노를 자아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과 외국인론들이 그에 대해 《전진력》, 《남조선식 <자유민주주의>의, 《주목은 남조선정치의 고질병》 등으로 심랄히 비난, 조소하였는가.

리명박계당이 집권하여 해마다 예산안을 비롯 각종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벌여놓고 있는 《국회》개싸움은 《한나라당》이 판을 치는 남조선정치의 부패상을 알리고 남음이 있게 해준다.

《한나라당》의 이번 《국회》 남치기를 조직하고 뒤에서 적극 부추진 장본인은 다름아닌 리명박이었다. 그가 해외에서 앞서 9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빨리 끝내라고 지령한데 이어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의 패도도입부보를 받는 자리에 서 통과된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집행해나가야》. 《그 때를어던것 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새해에산안의 남치기처리를 강행한것은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비이규회의

《한나라당》이 이번에 새해에산안의 남치기처리를 강행한것은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비이규회의

《한나라당》이 이번에 새해에산안의 남치기처리를 강행한것은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비이규회의

교섭경찰 통일사 한상렬목사에게 징역 구형

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괴뢰시중중앙지법검찰청이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여 통일사 한상렬목사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였다.

교섭경찰은 그가 《정부》의 사신으로서 북을 방문하고 체류기간 북의 체제를 찬양하였다는데, 2005년 9월 북의 주장에 동조하여 맥더리 동상철거투쟁을 주도하였다는

구제역피해 확대

남조선의 경기도에서 구제역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15일과 16일 경기도의 여러 시, 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18일 파주시 교하면의 한 농가에서 또 구제역이 감염된 젖소들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가와 주변 일대의 집집승들이 매몰처분되어 있다. 【조선중앙통신】

리명박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리명박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리명박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리명박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리명박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어머니!
한번만 불라도 가슴속을여가 순간에 풀려도 따스한 온기가 온몸에 흘러들기엔 눈물조차 눈송이가 소리없이 내려쬐는 뜻깊은 12월 24일!

다정하며 친근한 부름은 없을 것이다. 그 정겨운 부름과 더불어 세상사람 모두가 한결같이 순결한 감정을 안고 절절히 부르는 어머니가 있다. 그분은 바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빨재산의 너장군 김정숙동지이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하여 만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장려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만민의 어머니》라고 정답게 부르며 다함없는 경의의 마음을 소르높이 터치고있다.
박 송 영

빛나는 혁명생애, 고귀한 업적

수령결사옹위의 귀감
《김정숙동지는 항일혁명전쟁에서 위훈을 세우신 위대한분이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은 수령결사옹위의 생애, 방패가 되어서 김일성주석을 목숨으로 보위하신것이다. 녀사의 생애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투쟁에 나서신 녀사께서는 김일성장군을 조선혁명의 상징, 너수로 간주하시고 그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셨다. 김정숙녀사는 김일성주석의 가장 가까운 동지, 가장 충실한 전사이시었다.》(에프진트론 《달 라이》)

새 조국건설에 바치신 불멸의 헌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 후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을 받들어 새 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다. 결출한 녀성영웅이신 녀사께서는 주석의 평도를 받들어서 군 건설사업에 헌신하시었다. 조선인민은 김정숙동지를

위대한 녀성혁명가
《일제식민지 통치시기 조선의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부터 당국노의 설움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신 녀사께서는 일제치 조선사람 누구나 다 민족의 태양, 전설적영웅으로 높이 우러르는 김일성장군께서 주추드신 조국해방의 기치따라 혁명투

공적중의 가장 큰 공적
《녀사께서 쌓으신 가장 큰 공적은 김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령도자로 키우신것이다. 김일동지께서 지니신 천리해안의 예지와 강인담대한 배짱, 열렬한 조국애와 뜨거운 인간애는 녀사를

뜨거운 인간애에 매혹되어
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1948년 오랜 항일전쟁의 후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던 주보중과 그 일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평양에 있는 수령님의 저택에서 치료를 받는 날다른 특전을 지니게 되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그들의 병상대를 세세히 알아보시고 치료와 관련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었다.

랭전유물청산은 시대의 요구
《녀사께서 쌓으신 가장 큰 공적은 김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령도자로 키우신것이다. 김일동지께서 지니신 천리해안의 예지와 강인담대한 배짱, 열렬한 조국애와 뜨거운 인간애는 녀사를

모순과 갈등으로 복잡한 국제정세흐름
다. 일본이 중국어신을 억류하고 국내법을 적용하려 한 문제로 하여 두 나라 관계는 팽팽해졌다. 중국은 일본의 횡행에 강하게 반발해나섰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굴복하여 먼저 중국어신과 선원들을 돌려내고 중국이 중국어신을 석방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어신과 선원들이 터지면서 중일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 로일사이의 분쟁도 격렬해졌다. 로씨야대통령이 일본이 《평유원》을 주장하는 남부쿠릴열도에 대한 방면을 진행하자 일본은 불난 강변에 맨소 날뿔듯 팔벌 뛰었다. 일본이 불만을 터뜨리며 반발해나자 로씨야도 남부쿠릴열도가 자기 나라 영토라는 논거를 제시하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미군철수를 주장
한정하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진심으로 중동나라들의 이익과 번영을 바란다면 지역에서 무력을 철수시키고 이스라엘을 북부해안과 남부해안으로 분할하는것이 옳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에서 풍력자원 리용
중국에서 풍력자원을 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친절한 친위친사 이시며 조선의 미래를 안이키우시어 우리 인민의 태를 이어수령, 장군분을 누르실 것임에 굳이 의심할 여의 없이 영생하시리라 믿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열렬한 칭송을 받으시는 위인
산과 들에도, 거리와 마을에도 항일의 녀성영웅 김일성주석에 대한 추경을 불리일으키며 뉘 눈송이가 소리없이 내려쬐는 뜻깊은 12월 24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일찌기 무장을 들고 항일전쟁에 참가하시었다. 항항후에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새 사회건설과 부강조국건설사업에 불리일으키시었다. 녀사께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녀성해방을 위한 투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것으로 하여 오늘도 조선인민의 마음속에는 그이에 대한 추억이 깊이 간직되어 있다.》

《세계적평가를 받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경의의 정은 그이께 여러 나라 인사들이 올린 전문과 편지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자비명 전 시가량의 딸은 김정숙녀사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본이라고 하면서 녀사는 김일성주석의 가장 친근한 동지, 전우이시였으며 친위친사 이시었다. 항일대전의 나날 녀사께서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서 김일성주석의 신변을 견결히 보위하신 사실들은 널리 알려져있다. 녀사는 수령결사옹위, 결사판철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

《한없이 그러은 김정숙어머니, 어머니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24일을 맞으며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중국혁명혁명투쟁연고자 주보중의 딸 주위가족이 보낸 화환의 명기에 적혀진 글말이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그들의 병상대를 세세히 알아보시고 치료와 관련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었다.》

《녀사께서 쌓으신 가장 큰 공적은 김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령도자로 키우신것이다. 김일동지께서 지니신 천리해안의 예지와 강인담대한 배짱, 열렬한 조국애와 뜨거운 인간애는 녀사를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친절한 친위친사 이시며 조선의 미래를 안이키우시어 우리 인민의 태를 이어수령, 장군분을 누르실 것임에 굳이 의심할 여의 없이 영생하시리라 믿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세계는 누가 침략전쟁을 즐기는 도발자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를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20일과 21일에 보도하였다.

공동시장의 대대 강조
공동시장이 창설된 후 20년동안 성원국들사이의 무역이 8배로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현시기 지역에 미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그는 시장성원국들이 통합을 다그쳐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미군철수를 주장
한정하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진심으로 중동나라들의 이익과 번영을 바란다면 지역에서 무력을 철수시키고 이스라엘을 북부해안과 남부해안으로 분할하는것이 옳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에서 풍력자원 리용
중국에서 풍력자원을 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친절한 친위친사 이시며 조선의 미래를 안이키우시어 우리 인민의 태를 이어수령, 장군분을 누르실 것임에 굳이 의심할 여의 없이 영생하시리라 믿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친절한 친위친사 이시며 조선의 미래를 안이키우시어 우리 인민의 태를 이어수령, 장군분을 누르실 것임에 굳이 의심할 여의 없이 영생하시리라 믿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세계는 누가 침략전쟁을 즐기는 도발자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를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20일과 21일에 보도하였다.

공동시장의 대대 강조
공동시장이 창설된 후 20년동안 성원국들사이의 무역이 8배로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현시기 지역에 미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그는 시장성원국들이 통합을 다그쳐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미군철수를 주장
한정하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진심으로 중동나라들의 이익과 번영을 바란다면 지역에서 무력을 철수시키고 이스라엘을 북부해안과 남부해안으로 분할하는것이 옳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에서 풍력자원 리용
중국에서 풍력자원을 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친절한 친위친사 이시며 조선의 미래를 안이키우시어 우리 인민의 태를 이어수령, 장군분을 누르실 것임에 굳이 의심할 여의 없이 영생하시리라 믿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열렬한 칭송을 받으시는 위인
산과 들에도, 거리와 마을에도 항일의 녀성영웅 김일성주석에 대한 추경을 불리일으키며 뉘 눈송이가 소리없이 내려쬐는 뜻깊은 12월 24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일찌기 무장을 들고 항일전쟁에 참가하시었다. 항항후에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새 사회건설과 부강조국건설사업에 불리일으키시었다. 녀사께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녀성해방을 위한 투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것으로 하여 오늘도 조선인민의 마음속에는 그이에 대한 추억이 깊이 간직되어 있다.》

《세계적평가를 받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경의의 정은 그이께 여러 나라 인사들이 올린 전문과 편지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자비명 전 시가량의 딸은 김정숙녀사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본이라고 하면서 녀사는 김일성주석의 가장 친근한 동지, 전우이시였으며 친위친사 이시었다. 항일대전의 나날 녀사께서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서 김일성주석의 신변을 견결히 보위하신 사실들은 널리 알려져있다. 녀사는 수령결사옹위, 결사판철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친절한 친위친사 이시며 조선의 미래를 안이키우시어 우리 인민의 태를 이어수령, 장군분을 누르실 것임에 굳이 의심할 여의 없이 영생하시리라 믿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세계는 누가 침략전쟁을 즐기는 도발자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를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20일과 21일에 보도하였다.

공동시장의 대대 강조
공동시장이 창설된 후 20년동안 성원국들사이의 무역이 8배로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현시기 지역에 미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그는 시장성원국들이 통합을 다그쳐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미군철수를 주장
한정하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진심으로 중동나라들의 이익과 번영을 바란다면 지역에서 무력을 철수시키고 이스라엘을 북부해안과 남부해안으로 분할하는것이 옳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에서 풍력자원 리용
중국에서 풍력자원을 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친절한 친위친사 이시며 조선의 미래를 안이키우시어 우리 인민의 태를 이어수령, 장군분을 누르실 것임에 굳이 의심할 여의 없이 영생하시리라 믿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열렬한 칭송을 받으시는 위인
산과 들에도, 거리와 마을에도 항일의 녀성영웅 김일성주석에 대한 추경을 불리일으키며 뉘 눈송이가 소리없이 내려쬐는 뜻깊은 12월 24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일찌기 무장을 들고 항일전쟁에 참가하시었다. 항항후에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새 사회건설과 부강조국건설사업에 불리일으키시었다. 녀사께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녀성해방을 위한 투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것으로 하여 오늘도 조선인민의 마음속에는 그이에 대한 추억이 깊이 간직되어 있다.》

《세계적평가를 받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경의의 정은 그이께 여러 나라 인사들이 올린 전문과 편지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자비명 전 시가량의 딸은 김정숙녀사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본이라고 하면서 녀사는 김일성주석의 가장 친근한 동지, 전우이시였으며 친위친사 이시었다. 항일대전의 나날 녀사께서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서 김일성주석의 신변을 견결히 보위하신 사실들은 널리 알려져있다. 녀사는 수령결사옹위, 결사판철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친절한 친위친사 이시며 조선의 미래를 안이키우시어 우리 인민의 태를 이어수령, 장군분을 누르실 것임에 굳이 의심할 여의 없이 영생하시리라 믿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세계는 누가 침략전쟁을 즐기는 도발자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를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20일과 21일에 보도하였다.

공동시장의 대대 강조
공동시장이 창설된 후 20년동안 성원국들사이의 무역이 8배로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현시기 지역에 미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그는 시장성원국들이 통합을 다그쳐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미군철수를 주장
한정하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진심으로 중동나라들의 이익과 번영을 바란다면 지역에서 무력을 철수시키고 이스라엘을 북부해안과 남부해안으로 분할하는것이 옳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에서 풍력자원 리용
중국에서 풍력자원을 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친절한 친위친사 이시며 조선의 미래를 안이키우시어 우리 인민의 태를 이어수령, 장군분을 누르실 것임에 굳이 의심할 여의 없이 영생하시리라 믿고있다. 《조선중앙통신》